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의 운영현황 및 정책과제

Policy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Welfare Leisure Centers in Korea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 건강한 노인인구의 증가 등은 노년기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현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대표적인 경로당은 2011년말 현재 전국 61,74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에 의한 지원수준은 1개소당 연 평균 7,585천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로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향후 노인세대에서 경로당 이용에 대한 욕구는 감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향후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의 시설인프라 정비, 경로당 설치 기준 강화 및 정비, 경로당 관련 사업 주체의 일원화,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확대 및 경로당 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노인인구의 증가 및 노인 여가활동 특성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12년 현재 11.8%이며, 2017년에는 14%로 고령 사회(aged society)에 접어들게 된다. 또한 노인의 인구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5,889천명에서 5년 이후 2018년에는 7,395천명으로 약 1,506천명이 증가하여 연 평균 300천명씩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의 연령군별 노인 인구수의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65~74세의 노인인구는 3,558천명이며, 2018년에는 4,169천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75~84세는 1,895천명(2012년)에서 2,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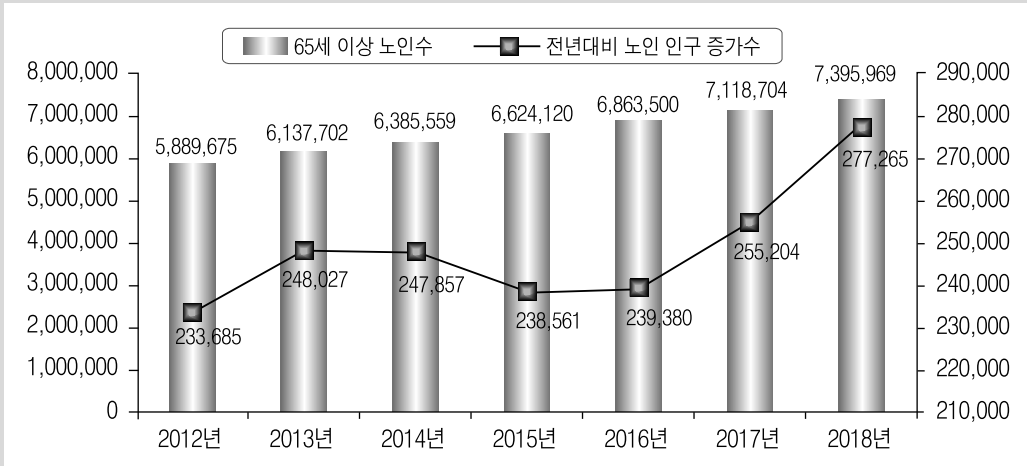
천명(2018년)으로 증가하며, 85세 이상 노인 인구수도 435천명(2012년)에서 702천명(2018년)으로 증가한다. 사회활동과 여가 등의 외부활동에 대한 욕구는 노인 중 건강과 기능상태가 양호한 젊은 노인에서 높게 나타남을 고려할 때, 향후 계속적으로 노인의 사회활동과 여가참여 등에 대한 욕구는 증가할 것이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이 있으며, 이중 경로당은 현 노인층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2011년 노인실태조사(2012)¹⁾ 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노인의 약 33.8%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노인의 성, 연령, 경제활동 그리고 거

1) 정경희 외(2012). 2011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1. 2012~2018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및 전년대비 노인인구 증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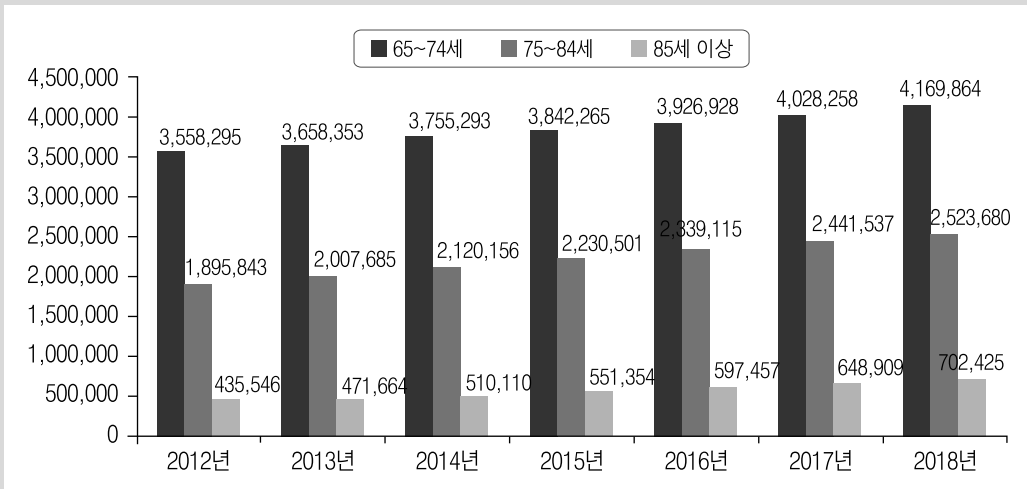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 원자료 재분석.

그림 2. 2012~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연령군별 인구수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0) 원자료 재분석.

주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경로당 이용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데 도시지역 노인의 19.5%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반면, 농촌 지역은 64.2%가 이용하고 있어, 약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로당 이용형태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나타내는데, 75세 미만의 초기노인에 비해 75세 이후의 후기 노인의 이용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75세 미만의 경우 경제활동은 경로당이용을 감소시키지만, 75세 이상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경로당 이용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연령별 경제활동의 강도와 시간 등이 약화되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진다.

또한 경로당 이용률의 차이는 노인의 학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무학노인(46.0~51.0%), 초등학교(37.1%), 중등학교(20.5%), 전문대학 이상(8.8%)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경로당 이용률은 감소하며, 향후 이용희망률에서

도 초등학교 이하 학력에서는 50%를 넘는 반면, 중등학교 학력에서는 38.3%, 전문대학 이상 학력에서는 22.5%로 낮게 나타난다(2011년 노인실태조사).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용 노인과 맞지 않음이 34.6%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연령기준이 19.5%로 나타났는데(2011년 노인실태조사), 이는 경로당이 법적으로는 60세 이상 이용가능하지만 실제 이용은 후기 노인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젊은 노인층에서는 이용할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특히 향후 노인세대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층이 많이 진입하게 되고, 이들의 경우 연령이 젊은 노인으로서 왕성한 활동이 가능한 계층으로 적극적인 노후 생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경로당 운영형태가 지속될 경우 노인의 경로당 이

표 1. 노인특성유형별 경로당 이용현황

(단위: %, 명)

구분	전체		도시		농촌		계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전체	33.8(3,608)	66.2(7,061)	19.5(1,416)	80.5(5,837)	64.2(2,192)	35.8(1,224)	100.0(10,669)
경제활동초기남	37.1	62.9	16.0	84.0	63.2	36.8	100.0(1,502)
경제활동후기남	63.5	36.5	41.5	58.5	75.6	24.4	100.0(446)
경제활동초기여	47.3	52.7	20.4	79.6	68.9	31.1	100.0(1,179)
경제활동후기여	62.8	37.2	38.7	61.3	77.7	22.3	100.0(441)
비경제활동초기남	13.8	86.2	9.8	90.2	37.9	62.1	100.0(1,456)
비경제활동후기남	26.7	73.3	19.0	81.0	52.2	47.8	100.0(1,200)
비경제활동초기여	22.7	77.3	15.3	84.7	56.5	43.5	100.0(2,282)
비경제활동후기여	41.4	58.6	30.1	69.9	68.0	32.0	100.0(2,163)

자료: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용률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현재 전국 61,749개소(보건복지부, 2012 노인복지시설 현황)가 설치 운영중인 경로당에 대해 경로당 관련 정책 및 지원현황,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과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2. 경로당 관련 정책 및 지원현황

1) 경로당 법적 설치 기준 및 설치 현황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의 정의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며,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되고 있다. 경로당의 설치 규정은 기준 이용인원 이상(20명 이상, 읍면지역의 경우 10명 이상)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이들 이용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7조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로당 설치는 신고제로서 누구나 이용정원 20인 이상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경로당 설치에 대한 또 다른 기준법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의한 규정」으로 2012년까지 경로당 설치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40제곱미터에 150세대를 넘는 때 세대 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하였다²⁾.

경로당은 2011년 12월말 현재 전국 61,749개소가 설치 운영중이며, 1개 시군구 평균 269개소가 운영중이다. 시군구 평균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도시는 1개 구에 평균 138개소가 운영중이며, 중소도시는 361개소, 농어촌은 292개소가 운영되어있다. 노인인구수별 경로당 수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노인 92명당 약 1개의 경로당이 설치되어있으며, 대도시는 236명당 1개소, 중소도시는 89명당 1개소, 농어촌은 노인 41명당 1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있는 것이다. 앞서 경로당 이용률이 노인의 약 33.8%임을 고려하면, 1개소당 평균 노인 31명이 이용 중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경로당 이용노인의 주평균 이용일수가 3.8일³⁾임을 고려하면, 1일 평균 이용노인은 약 17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2) 경로당 관련 정책 및 예산지원 현황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되지 않으며, 단지 노인들이 여가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되어있다. 따라서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사

2) 2013년부터는 주택건설 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경로당을 비롯하여 어린이 놀이 시설 등의 주민공동시설 총량 기준에 따라 설치 가능. 따라서 경로당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음.

3) 정경희 외, 앞 저서.

표 2. 지역별 경로당설치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전체	9,548	27,066	25,135	61,749
평균수	138.4	360.9	292.3	268.5
최대값	362	930	634	930
최소값	28	31	22	22
경로당 1개소 당 노인수	236.0	89.0	41.3	92.3
시·군·구 수	70	75	86	231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 노인복지시설 현황.

업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경로당의 수가 많고 노인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경로당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경로당 운영혁신사업이다(201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경로당 운영혁신사업은 경로당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시·군·구별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배치를 통해 경로당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실시, 경로당 운영 관리 지원, 경로당에 대한 조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군·구의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통한 경로당 관리 중 주요한 사업은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해당 지역의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일부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의 역할을 주로 한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전국 287명이 활동 중이며, 시·도 단위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는

18명이며, 시·군·구 단위는 267명으로 나타난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1명의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배치되어있으며, 23개 지역에서는 2명, 3개 지역에서는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2).

또한 노인복지관에서는 경로당 혁신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경로당 혁신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의 소수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향후 경로당이 자립하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역량강화 사업으로 실시되며, 노인복지관 기본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경로당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지자체에서는 분권교부세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분권교부세를 통한 지원 이외에 노인복지법 제37조 2항과 제37조 3항에 의해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와 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조항을 갖고 있으며, 이에 의해 일부 국

표 3. 경로당 지원 사업의 예산 출처 현황

구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
지원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난방비 • 경로당 지원 • 광역센터운영 (2012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운영비 • 경로당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 경로당순회프로그램비 • 양곡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난방비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내부자료(2012)

고보조금 또는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추가적인 지원 사항이 기존의 운영비 지원과 명목상 큰 차이를 갖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경로당에 투입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1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은 7,586천원이며, 대도시는 7,074천원이며, 중소도시는 9,513천원, 군 지역은 6,366천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국 경로당이 61,749개소이므로, 대략 경로당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은 1년에 4,685억원 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은 운영비, 난방비가 전체의 58.4%를 차지하며, 기타 지원예산이 29.7%로 대부분 경로당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사업비의 비중은 전체 경로당 지원비의 약 8%가량으로 높지 않았다.

이들 경로당관련 예산은 지자체의 노인여가 복지사업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지자체 평균 57.0%로 상당히 높으며, 특히 도시지역에 비해 군 지역에서의 비율이 67.4%로 나타났다.⁴⁾

3. 경로당 운영현황⁵⁾

1) 경로당 운영 현황

경로당의 운영시작 시기는 2000년 이후라는 응답이 45.1%로 거의 절반 정도이고, 1990년대 37.1%, 1980년대 15.0%, 1980대 이전 2.8% 등이다. 지역별로 2000년대 이후 운영을 시작한 경로당의 비율을 비교하면 군 지역은 48.9%로 대도시(39.9%)와 중소도시(43.0%)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경로당의 지역특성을 보면, 농어촌지역의 특

4) 이윤경 외(2012). 노인여가복지시설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본 글의 경로당 운영현황 자료는 2012년 실시한 「전국 경로당 실태조사」의 자료이며, 전국 경로당 61,749개소 중 조사에 응답한 54,007개의 경로당 조사결과를 분석한 것임. 보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이윤경 외(2012). 노인여가복지 발전방안 연구'에서 제시되어짐.

표 4. 지역별 경로당 지원 사업비 예산(년)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1개 경로당 평균 지원금(천원/년)	7,074.0	9,513.0	6,366.8	7,585.7
시군구별 경로당 지원사업 내용별 평균 구성비				
운영비	37.9	25.8	24.5	29.5
난방비	24.6	28.9	33.2	28.9
양곡 및 식재료비	4.2	4.4	3.2	3.9
기타 지원예산	22.2	33.5	33.8	29.7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6.7	4.3	3.1	4.7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사업비	4.4	3.1	2.3	3.3
(N)	(48)	(45)	(51)	(144)

성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60.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파트지역 18.6%, 주택밀집지역 16.1%, 주택·아파트 혼합지역 2.1%, 주택·상가 혼합지역 2.0% 등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의 경우 아파트 지역이 53.2%로 절반 이상인데 반하여, 중소도시와 군 지역은 아파트지역이 각각 22.4%, 2.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농어촌지역(54.4%, 84.0%)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경로당이 사용하는 건물의 면적을 살펴보면 20~30평 미만이 45.0%로 가장 많으며, 10~20평 미만이 20.2%, 30~40평 미만이 18.8%, 40평 이상이 12.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40평 이상의 비율이 21.6%인데 비하여 중소도시(12.3%)와 군 지역(8.8%)은 상대적으로 더 낮고, 20~30평 미만의 비율은 중소도시와 군 지역의 경우 각각 44.2%와 52.5%로 대도시(26.4%)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

경로당의 설비 용품을 살펴보면, 에어컨은 72.5%, 선풍기는 91.9%, 기타 2.9% 등으로 나

타났으며, 지역별 에어컨 보유율은 대도시가 86.2%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 74.4%, 군 지역 66.0% 등이다. 취사시설 설치율을 보면, 가스레인지 95.6%, 1회용 가스레인지 27.1%, 전기스토브 6.7%, 전기밥솥 90.3%, 기타 7.5% 등으로 취사를 위하여 가스레인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은 전기밥솥 순이다. 안전을 위한 소화기 또는 비상벨의 설치율은 70.9%이고, 지역별로는 대도시(86.4%)가 중소도시(70.8%)와 군 지역(65.5%)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군 지역의 경로당은 화재 위험 등에 노출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로당이 경로당 내에서 취사를 실시하고 있어 화기에 항상 노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회원 수 및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등록 회원 수는 20~39명이 52.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40~59명이 24.5%, 19명 이하가 10.8%, 60명 이상이 11.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20~39명 시설(61.4%), 중

표 5. 경로당의 운영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운영 시작	1980년대 이전	3.4	3.0	2.5	2.8
	1980년대	17.9	13.9	15.0	15.0
	1990년대	38.8	40.1	33.7	37.1
	2000년 이후	39.9	43.0	48.9	45.1
지역 특성	주택밀집지역	28.2	17.7	10.4	16.1
	아파트지역	53.2	22.4	2.9	18.6
	주택·아파트 혼합지역	4.9	2.2	0.9	2.1
	상가/사무실 지역	0.9	0.7	0.4	0.6
	주택·상가(공장) 혼합지역	3.6	2.2	1.2	2.0
	농어촌지역	7.9	54.4	84.0	60.2
	기타	1.3	0.4	0.2	0.4
계		100.0	100.0	100.0	100.0
(N)		(8,357)	(21,913)	(23,737)	(54,007)

주: 전체 조사응답 경로당 54,007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소도시는 40~59명 시설(26.6%), 군 지역은 19명 이하(16.2%)와 60명 이상(12.0%) 시설이 각각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이다.

연평균 1일 이용 노인 수를 보면, 10~19명이 42.7%로 가장 많고, 그 다음 20~29명 27.2%, 30~39명 12.3%, 9명 이하와 40명 이상은 각각 8.9%이다. 지역별 1일 이용 노인 수는 군 지역은 9명 이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고, 대도시는 40명 이상의 시설 비율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2)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

경로당의 의무적 사업은 없으나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혁신사업을 통해 경로당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

면 취미·오락프로그램 실시율이 31.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건강관련프로그램 실시율 29.7%, 운동프로그램 실시율 19.2%,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 12.6%, 교양프로그램 실시율 7.8%, 소득연계사업 실시율 2.7%, 정보화프로그램 실시율 2.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 건강관련프로그램(44.1%), 취미·오락프로그램(44.5%), 운동프로그램(33.9%)의 실시율이 중소도시나 군 지역에 비하여 약 10% 이상 더 높게 나타났다.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로당의 경우 운동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는 시설이 84.5%이고, 대도시의 경우 88.1%로 평균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 경로당의 프로그램별 실시율¹⁾

(단위: %,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전체
프로그램 미실시 비율	25.1	40.7	50.8	42.8
건강관련프로그램	44.1	29.0	25.3	29.7
교양프로그램	11.2	9.1	5.5	7.8
정보화프로그램	4.6	2.4	1.3	2.3
취미·오락프로그램	44.5	34.1	25.2	31.8
자원봉사활동	13.5	19.5	5.8	12.6
소득연계사업	3.0	3.0	2.4	2.7
운동프로그램	33.9	17.6	15.6	19.2
계	100.0	100.0	100.0	100.0
(N)	(2,707)	(3,693)	(3,600)	(10,000)

주: 1) 전체 조사응답 경로당 54,007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항목별 무응답은 제외함.

4. 향후 경로당 정책의 개선방향

현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및 자원투입은 경로당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경로당은 전국 6만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어있음으로 인해 노인들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기관이며, 노인의 휴식 및 여가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노인복지시설로서는 인력 및 운영에서 매우 미흡하며, 실태에 대한 파악 등이 부족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기능보다는 노인의 모임장소, 휴식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경로당은 지역 내 노인의 모임장소, 일부 프로그램의 실시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으나 그 활용 수준이 높지 않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경로당은 노인의 이용이 점차 감소할 가능성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장기적인 개편이 요구되어진다.

경로당의 장기적인 개편방향은 양적 증가 제한, 경로당 관련 사업의 효율성 증대, 경로당 프로그램 실시 반의무화로서, ① 경로당 설치기준 강화 및 정비, ② 경로당 관련 사업 주체의 일원화, ③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 확대 및 지역별 경로당 사업에 대한 평가 방안을 제시한다.

1) 경로당 설치 규정 강화 및 정비

현재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제시된 기준을 준수할 경우 누구든 시·군·구에 설치 신고를 하고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재 노인인구의 경로당 이용률은 33.8%(2011년 노인실태조사)로, 1개 경로당별 평균 이용노인은 31명으로 나타난다. 또한 노인의 1주일 평균 이용일수는 3.8일임을 고려하면 1일 평균 1개 경로당의 이용노인은 약 17명으로 나타난다. 즉, 현재의 경로당 규모(61,749개소)는 전국적인 인프라 규모

로 볼 때 더 이상의 증가는 과다공급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로당에 대한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여 지역별 경로당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설의 규모, 예산 등에서 큰 편차를 보이며, 특히 소규모 경로당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등이 어려워 몇몇 노인만이 이용하는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여가복지 인프라 체계 내에서 경로당에서도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수준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과 이용인원의 규모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경로당에 대한 단계적 통합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추진하여 통합하는 경로당에 대한 추가적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통합대상 경로당은 월 평균 연인원 규모가 400명 미만(1일 20명×20일 기준)인 수준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경로당 안전설비 확보 및 관리:

화재 대비 및 위기상황에 대한 조치

경로당은 노인의 지역 내 생활 장소로서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볼 때, 안전한 시설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취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로당의 안전설비의 확보 및 점검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로당에서 집단 취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3) 경로당 관련 사업주체의 일원화

현재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노인복지관 기본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한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통한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지역에서는 노인복지관에 추가적인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사업주체는 다르지만 경로당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어 차별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이원화된 사업주체를 일원화하여 지자체별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관의 기본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노인복지관 기본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지자체별로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노인복지관의 별도의 사업으로 위탁·운영하도록 한다.

4) 경로당 프로그램비 대폭 지원 확대:

경로당 프로그램 실시 의무화

경로당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휴식을 위한 공간이 아닌 여가복지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단순히 노인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경로당을 개방하고, 외부 지역

사회 자원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고리로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방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경로당의 지원은 상당부분 운영비와 난방비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비에 대한 지원의 부족이 경로당에서의 여가 복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경로당 주 1회 프로그램 실시”를 목표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경로당 프로그램 실시율을 지자체 복지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시·군·구별 경로당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 경로당 이용 증진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